

地間

제주도시건축문화 전문지

2014 가을 Vol.3

특집

제주, 그 곳에서 건축하기

역사·포인트

하천리 송종선 초가
1960년대 초 개척농가 건물
기당미술관

신작·포커스

김녕 5993

도시경관

제주시 도시계획역사를 통해 바라본 원도심 재생사업

해외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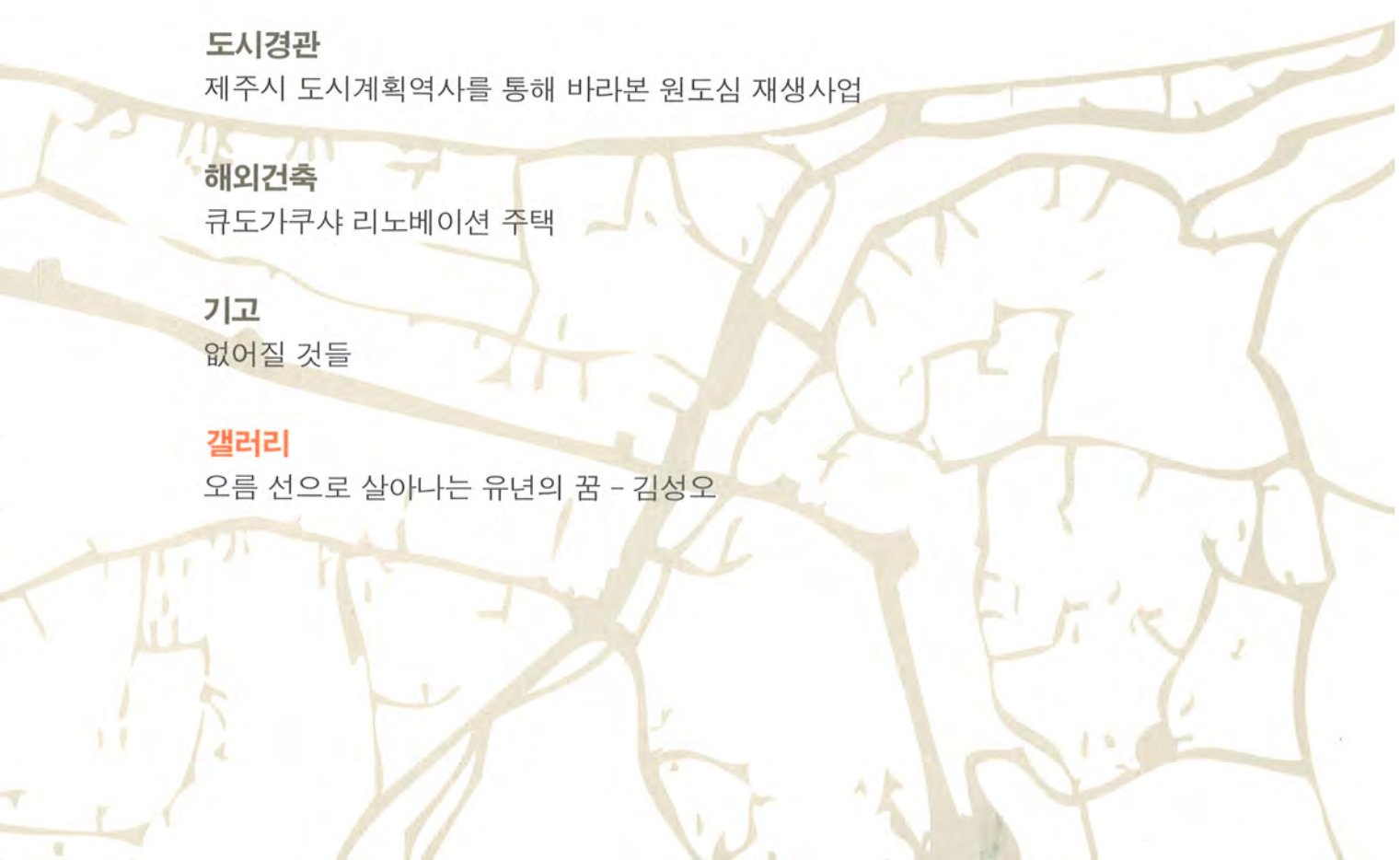
큐도가쿠샤 리노베이션 주택

기고

없어질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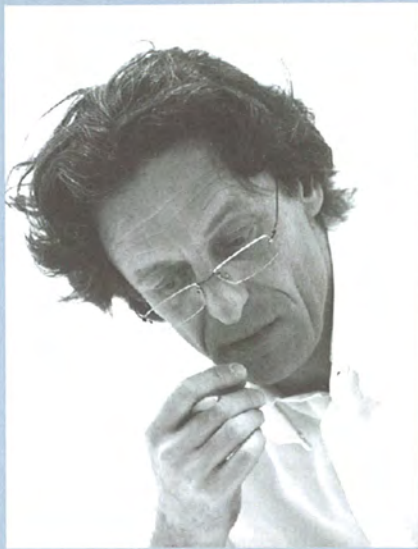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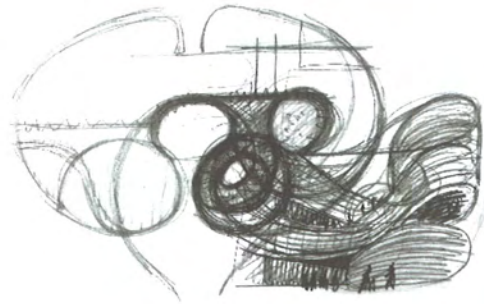
갤러리

오름 선으로 살아나는 유년의 꿈 - 김성오



제주의 건축적 메타포 - 월중미술관

다비데 마쿨로 | Davide Macullo Architects 대표



1965년 스위스 지오르니코 출생. 추크, 루체른 기술고등학교에서 수학하고, 1989년 루가노 예술 디자인 대학을 졸업했다. 1998년부터 스위스 건축가 및 공학자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 설계사무소를 설립하기 이전 20년동안 마리오 보타 아키텍츠에서 국제 프로젝트 건축가로 활동하며 전세계를 무대로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맡았고 서울 리움 미술관과 제주 피닉스 아일랜드의 클럽하우스 책임 설계를 맡기도 했다. 다비데 마쿨로 아키텍츠는 엑스포 시너지 A상의 최종 후보자 목록에 올랐으며, 그외에도 바르셀로나 세계 건축대상의 두개 부문, 월드 아키텍처 뉴스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주택상, 슬로베니아 히세의 혁신과 우수상, 런던의 유럽 호텔 디자인 상과 코퍼인 아키텍처 등에서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 외에도 주거 건축 프로젝트로 테쿠상, 디테크 국제 건축상, 루이지 코센자 유럽 건축상을 수상하였고, 웰 페이퍼 잡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신혼 건축가' 목록에 선정되었으며, 세계 건축커뮤니티 20+10+X 상에서 수상자로 등극했다.

'건축은 한 장소의 DNA를 미래에 연결해 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며,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그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건축적 공간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물의 퀄리티는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삶의 질과 비례하며, 이는 그들을 위한 배려의 연장선에 존재하기에 단순히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치중하기보다는 감정의 흐름으로서의 공간을 만드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부지를 처음 보았을 때는 비단 건축뿐만이 아닌 미술, 역사, 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의 나의 삶의 경험에서 습득한 정보와 지식 중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낸다.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작용하여 하나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공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건물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주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제주 땅이 낳아 자연이 길러 준 것 같다. 그들은 더없이 거칠지만 한없이 포용적인 섬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살아간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닮은 이유도 그에 있을 것이다. 이는 제주인의 삶과 건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제주의 건축은 마치 땅에서 자라난, 제주 땅의 일부와 같다. 인위적이고 과장된 꾸밈 없는 제주인의 모습처럼 건축물도 그대로 자연의 일부가 된 모습으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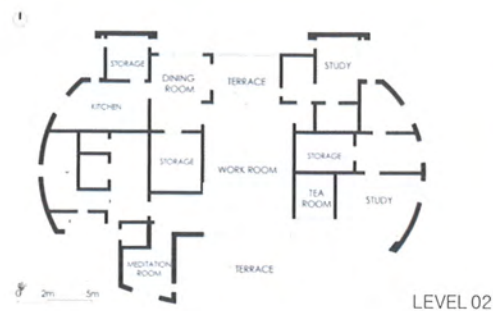
이것이 이월중 미술관의 설계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이다. 여러 번 제주를 찾으며 느끼고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땅 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닌 땅에서 자라난 건축물을 계획하도록 노력했다. 초기 컨셉 스케치에서 볼 수 있듯이, 미술관의 티플로지는 제주의 토양에서 벽이 만들어지고 물이 형상을 만들고 바람이 다듬어 준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가와 건축주의 관계를 넘어선 건축가와 예술가 사이의 협력작업이었다. 건축가가 제주 땅을 닮은 초기 건축매스를 만들고 작가는 깎고 자르고 형태를 만들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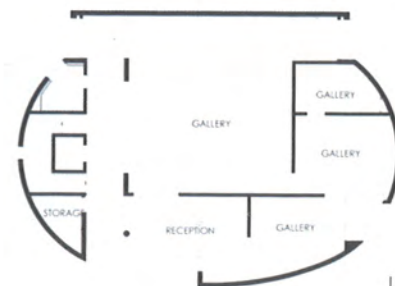
제주는 보석같이 귀한 섬이며 이 섬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최대한 느린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매료되어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최근들어 무차별한 건축붐이 불고 있다. 물론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은 건축이 가진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지만 건축가는 자연의 요소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존중하고 장소의 정체성을 이해해 겸손한 태도로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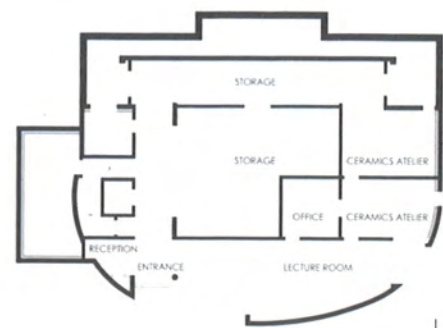
(사진 박영채)



LEVEL 02



LEVEL 01



LEVEL 00

